

##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영어 관용어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모든 발생한 것들에는 그것이 일어날 만한 원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중국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까닭이 있다'는 뜻의 필유곡절(必有曲折)입니다. 곡절은 굽고 꺾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리저리 엮히고설킨 복잡한 사정이나 까닭을 뜻합니다. 인과응보(因果應報)도 비슷한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대충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런 표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으로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도, 하지도 말라는 뜻 아닌가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겉모습이나 드러난 현상만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 이면에 있을지도 모를 숨겨진 사실이나 진실까지도 생각해보고 판단하라는 경구라고 생각합니다. 동서양을 구분하지 않고 이런 관용적 표현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원인이 단발적이기보다는 복잡하고 누적된 요인들의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려는 것일 겁니다. 거창하게 필연과 우연이

교차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예로 들 것도 없습니다. 자기 일이나 주변의 소소한 일들도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저런 사정과 이유가 얽혀서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죠. 어떤 때는 처음 판단과 나중의 평가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첫 판단대로 말하고 행동했다가 민망한 상황에 부닥치거나, 때론 속으로 뜨끔했던 적은 없나요.

20대 총선이 지나갔습니다. 언론을 포함해서 정치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정치부 기자로서 첫 총선 취재가 1992년 14대 선거였습니다. 3당 합당으로 213석을 유지했던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이 149석을 얻었습니다. 2당인 민주당(97석)을 멀찌감치 따돌렸지만, 과반에는 1석 모자랐지요. 언론은 당시 정치 역학 구도를 고려해 민주당의 충격적인 패배라고 규정지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집권 여당이 과반은 물론이고 1당 자리마저 처음으로 빼앗겼으니 우리 정치사에서 사건은 사건입니다.

각 당 안팎에서, 여러 정치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시각으로 많은 분석과 진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 근거와 수치를 들이대며 하는 맞는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막장 공천이니, 옥새니, 야권분열이니, 반사이익이니 하는 나름의 분석들이 결과를 단칼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격'이라는 말이 있지요. 어떤 부위를 만지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데, 장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틀린 게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까지만이지요. 전체적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관조(觀照)라고 생각합니다. 국어사전에는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봄'이라고 풀이돼 있습니다. 중학교 국어 시간에 소설을 다룰 때 선생님이 전지적(全知的) 작가 시점을 '어항에서 노는 금붕어를 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 지금까지 기억납니다. 사물과 현상을 한 발 떨어져 두서너 계단 위에서 바라보는 시각 말입니다. 말하자면 상황을 객관화시켜 쿨하고 냉정하게 뜯어보는 거지요.

선거 결과를 놓고 나오는 민의, 심판, 반사이익 같은 평가들은 어찌 보면 추상적이고 허공으로 날려 보내는 수준의 얘기일지 모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누적된 그 무엇, 사회·문화의 변화, 정치의 품격, 나아가 우리들의 수준까지, 전체를 어항 속 금붕어 보듯 관조해볼 필요가 있지요.

엊그제 끝난 선거 얘기를 했지만, 사실 개인 각자에게는 자신과 주변의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과 주변의 일에 대해 때때로 관조하면서 살펴보는 것은 상황 판단과 앞으로의 준비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에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단발성 이유라기보다는 누적된 그 무엇, 상호작용했던 그 무엇 등등이 겹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자신과 주변에 온갖 분석과 예상, 장담과 유혹이 얽혀 있는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관조가 아닌가 싶습니다.